



미 증시, 인프라투자 기대, 물가지표 경계심리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27 일(목) 미국 증시는 주간실업지표, 4 월 내구재 주문 등 주요 지표간 엇갈린 모습을 보인 가운데, 공화당의 타협안 제시에 따른 인프라투자 기대 확대, 28 일(금) 4 월 PCE 물가지표 경계심리 등으로 혼조세 마감(다우 +0.41%, S&P500 +0.12%, 나스닥 -0.01%, 러셀 2000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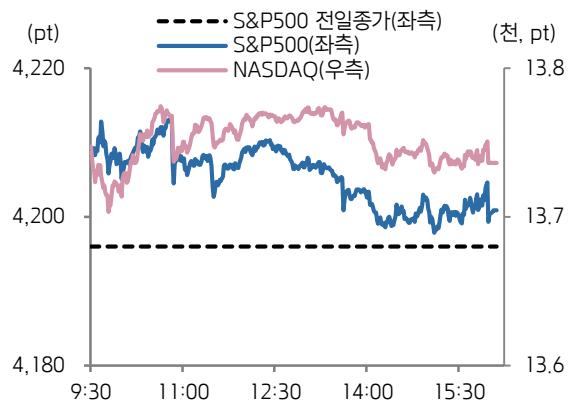
4 월 내구재주문은 -1.3%(MoM)으로 전월(+1.3%) 및 예상치(+0.9%)를 모두 하회하며 1 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1 분기 경제성장을 잠정치는 +6.4%(연율)로 예비치(+6.4%)와 동일했으나 예상치(+6.6%)를 하회. 세부적으로 개인소비지출(10.7%→11.3%)이 상향조정됐으며, PCE(3.5%→3.7%), 근원 PCE(2.3%→2.5%) 등 물가지표도 상향조정.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40.6만명으로 전주(44.4만명) 및 예상치(42.5만명)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 판데믹 이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하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미국 증시 평가

전일 공화당에서는 증세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약 9,300 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을 제시.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규모 1.7 조달러와 간극이 큰 상황이지만, 공화당의 금번 제안은 기존에 요구했던 6,150 억달러에 상향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공화당과 바이든 행정부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면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성이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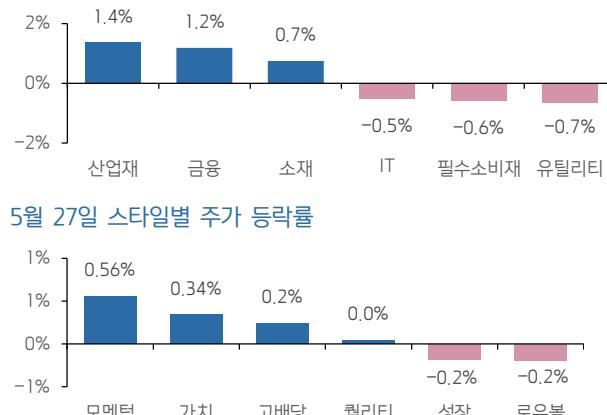
그러나 4 월 PCE 물가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가 높아졌다라는 점이 전 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산업재(+1.4%), 소재(+0.7%), 기술(-0.5%) 등 업종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만들어 냈다고 판단. 또한 현재 대부분 연준 위원들, 엘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 인지를 놓고 시장의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5월 27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2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0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8.6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 재부각에 따른 국내 소재, 산업재 업종 센티멘트 개선 가능성
- MSCI 리밸런싱 종료 이후 외국인 순매도세 진정 여부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해소 기대감 확대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종 주가 강세 여부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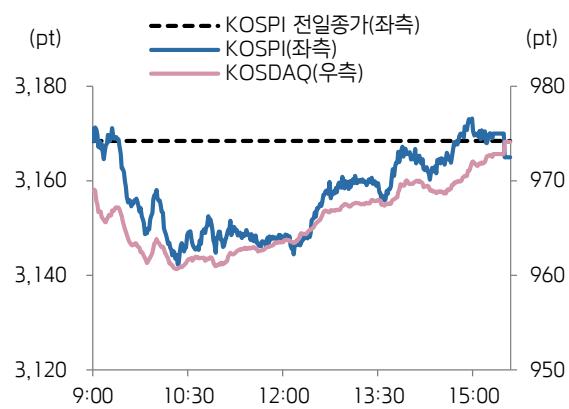
27 일(목) 한국 증시는 경기 민감주와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 했으나, 이후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관련 외국인 패시브 매도 물량으로 하락 전환함. 그러나 장 중반 이후 매파적이었던 금통위 이벤트를 소화하며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0.8%). 업종별로는 건설(+2.9%), 기계(+2.1%), 철강금속(+2.0%) 등 경기 민간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화학(-1.42%), 운수장비(-1.33%), 보험(-0.92%) 업종 등은 약세를 보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448 억원 순매도를 보였으나,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5 억원, 2,354 억원 순매수하며 수급상 지수 하단을 지지.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경기 민감주들의 주가 모멘텀 지속 기대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MSCI 리밸런싱이 종료된 만큼 5 월 중 공격적인 순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성이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 존재. 그러나 금일 밤 발표 예정인 4 월 미국 PCE 물가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 시 순매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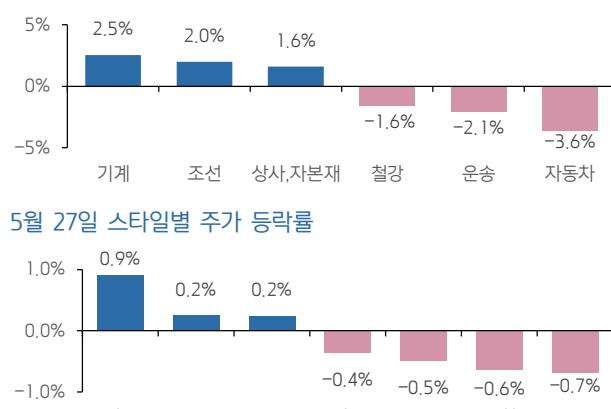
상당부분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시장 뉴스 플로우로 다시 떠올랐다는 점은 국내 소재, 산업재 업종들의 센티멘트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 또한 미국 GM(+2.9%)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중단했던 북미, 한국 등 전세계 공장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는 점도 국내 증시의 순환매 장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5월 27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27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